

추 “개혁 적임자” 박 “변화 이끌 사람” 김 “보수층서 검증”

추미애

1 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세 분을 당선시키는데 항상 앞장서왔다. 그분들의 정신과 철학을 계승하고, 숭고한 뜻을 실천적 행동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시대적 개혁 과제를 착실히 수행해 왔다.

저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 중 가장 혹독한 검증을 통과한 사람이다. 청렴성과 개혁성, 정통성을 기반으로 가장 뚜렷한 민주당다운 비전과 정책을 갖겠다고 자부한다. 늘 약속을 지켜왔다. 당대표 출마 때 약속했던 대로 호남비전위원회를 설치해 위원장을 직접 맡아 예산을 최선으로 다해 챙겼다. 용기가 필요한 때에는 과감하게 결단하고 주저하지 않았다. 촛불집회 때 쿠데타 모의를 막았던 것처럼 남들의 비난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국민과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진실을 밝혔다.

하지만 이렇게 타협 없이, 개혁을 주저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다보니, 의외의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도와주는 자도 없고 당은 보수 세력이 만든 프레임에 갇혀서 함께 개혁하자고 반겨주는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때도 있다. 오직 우리 촛불 시민들과 국민분들의 응원과 격려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민주 성지 광주에 현재 유치 호남형 메가시티 만들것 남해안 섬 휴양·관광벨트로

2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전문에 실는 개헌을 추진해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완수하겠다. 1987년 민주화운동의 성과인 헌법재판소를 민주화운동의 성지인 광주에 유치하여 광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여겠다.

“광주-나주-목포” 여수-순천-광양 일대를 잇는 호남형 메가시티를 만들어,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자치단체간의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 광주에 AI사업 융합 집적단지, AI대학원을 설립해 세계적 AI연구 허브로 만들겠다. 친환경 공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자율주행차와 전기자동차 등 첨단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겠다. 테라비트급 광통신 핵심부품을 기술 개발해 세계시장을 선도하겠다.

전남에 지역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고, 의과대학을 설립하겠다.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단지 추진과 ‘전남형 상생일자리’를 위한 에너지개발구역 지정, 항만기본계획 등에 반영하겠다. 차세대 대형방사광가속기를 건설해 충청·영남권과 연계한 국가과학기술 삼각축을 완성하고, 한전공대를 세계적 수준의 에너지 특화 대학으로 만들겠다. 우주산업개발-미래비행체의 시범단지를 우주산업 메카로 육성하겠다. 남해안을 역사·문화·생태자원 아우르는 국제적 섬 휴양·관광 벨트로 만들겠다.

3 5번의 죽을 고비, 55번의 가택연금, 6년간의 수형생활, 777일의 해외망명, 납치, 사형선고 등 갖은 핍박과 탄압을 받았던 분이 계신다. 정치 인생 내내 정적과 보수진영으로부터 색깔론에 시달리고 그들의 거짓 프레임 견여 온갖 고초를 당하면서도 마침내 권위주의 체제를 종식시킨 분, 바로 김대중 대통령님이다. 그분이 지역감정과 차별의 피해자로서 한 많은 세월을 살아왔던 호남의 용기를 끌어내 국민화합과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하는 역사적 전환점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국민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은 정권의 입맛에 맞춰 사건을 조작하고 선택적 수사하고 기소를 통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권위주의를 무시해왔다. 이런 적폐를 개혁하고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결정을 이뤄냈고 장관 지휘권 행사를 통해 민주적 통제의 전범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 과정에서 저 또한 많은 상처를 입었다.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의 인권과 민생은 정치적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저 추미애 지극히 믿음을 보여왔고, 앞으로도 보여드릴 것이다. 오직 국민을 위해 견겠다.

박용진

1 대한민국은 빛의 속도로 세상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 변화를 주도해야 할 정치가 변화하지 않는다. 나라는 선진국인데 내 삶은 행복하지 않다. 국민들은 세상이 공정하냐고 되묻는다.

저 박용진은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불평등에 계속 맞서왔다. 다른 후보와 차별화되는 지점은 시책말로, ‘눈치보지 않는다’는 거다. 욕을 먹더라도 할 말은 하는, 젊고 유능하고 소신있는 정치를 해온 것이 박용진만의 분신 경쟁력이다. 거대 이악단체인 한유층에 맞서 유지원 3법을 통과시키고, 삼성과 현대차 등 재벌 기득권에 맞서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을 밝히고, 현대자동차에 대한 국토부 강제리콜 명령을 이끌었다. 주식시장의 약자인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제도 개선에 매진했다.

저는 대통령이 되어서도 대한민국의 불공정과 싸울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때로는 욕도 먹을 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 정치에는 변화가 필요하고, 그 변화를 만들어낼 사람이 바로 박용진이다. 변화에 대한 절박함으로 출마를 했다. 기득권에 맞서는 발상 전환의 새로운 정치를 보여드리겠다.



바이미식스 광역경제권 구축 고흥에 6G 우주 클러스터 무안공항 국가거점 공항화

2 바이미식스 광역경제권을 만들어 호남에 그랜드비전을 안겨드리겠다. 구체적으로 나주혁신도시에 에너지 특화산업단, 함평·광안에 미래 특화산업단 그리고 장성·북구에 AI 인공지능 특화 산단을 만들겠다. 이 세 곳을 중심으로 480만평 규모 국가 미래산업 삼각지대를 구축하겠다.

더 나아가 화순에 바이오백신 산업특구, 여수·순천·광양의 5G 스마트산업단지, 고흥에 6G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광주-전남 전역에 광역경제권을 형성시키고자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 광주-전남에 미래 먹거리 산업이 모두 들어서게 된다.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리 호남이 이를 선도하는 대표지역이 될 것이다. 이밖에도 호남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RE300)를 구축하고, 완도 국립난대수목원, 흑산관광조기 추진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 광역경제권 조성을 위한 교통망도 충분히 확충하겠다.

광주와 전남에 들어설 바이미식스 각 산업 간에 유기적인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간 교통망 연결을 이뤄 내겠다. 광주 상무지구와 나주혁신도시를 잇는 광역철도와 광주 1호선의 화순 연장으로 광주-전남 미래산업 삼각지대의 연결성을 높여려고 한다. 달빛고속철도와 전라

김두관

1 민주당이 어려운 지역에서 여러차례 출마했고, 많이 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지역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도 됐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지역에서 표가 검증되었다는 점은 본선 경쟁력이 아닐까 싶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 중에서 저 말고는 영남에서 도전하신 분이 아무도 없다. 여론조사 수치로 보는 것과 실제로 표를 받아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저는 경남도지사 선거에 세 번 출마해 처음에는 16.9%를 얻었다. 계속 도전하면서 민심을 얻어 두 번째는 25.41%, 2010년에는 53.5%를 얻어 당선됐다.

지난 총선에서도 정말 오랜만에 경남으로 돌아왔는데, 양산에 내려온지 80여 일만에 당선이었다. 경남에서는 김해를 제외하고 유일한 당선지가 바로 저였다. 제가 좀 통글통글해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분들도 크게 거부감이 없다는 게 제 장점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경남도정을 펼칠 때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도의회에 한번도 빠짐없이 출석하고, 설득과 타협의 정치를 만들어왔다. 이런 부분이 본선에서 제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



광주·전남북 메가시티 조성 군공항 부지 스마트시티로 새만금~부산 KTX 철도 건설

2 저는 일단 광주, 전남, 전북의 메가시티 추진이 지역 발전의 핵심 열쇠라고 생각한다. 저는 전국을 5개의 메가시티와 2개의 특별자치도로 완전히 재편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 중에서 광주, 전남, 전북을 묶어 500만 이상의 규모로 묶어야 한다. 우선 전라선 고속철을 조기 건설하고, 지역 연계 교통망 강화로 1시간 생활권을 만들겠다. 광주-전남권의 경우 군공항 부지를 그린스마트시티로 조성하고, 공항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그리고 인공지능산업융합과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해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겠다. 호남권 첨단 의료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세계 에너지 신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 전북권은 첨단산업과 그린에너지 선도도시로 만들 것이다. 특히 수소산업을 확대 지원하고, 관련 산단을 구축하겠다. 새만금 RE100 특화 산단과 배후도심지를 구축하고, 지역내 주민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겠다.

영남지역과 연결되는 새만금-부산-포항을 연결하는 KTX 철도를 건설하고, 동남부지역에는 공공의대와 공공의료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아울러 도내 KTX 연계 전철망을 구축하고, 교통망을 확보하겠다. 전북의 고유

한 역사성을 살려, 관광산업을 특화 개발하고 전북 혁신도시도 지원하겠다.

3 나라의 미래를 위해 지역을 살릴 사람, 지역의 비전을 만들어갈 사람은 김두관 뿐이다. 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성지인 광주와 전남을 세계에 손꼽히는 잘 사는 도시로 만들고 싶다. 탄소중립 시대에 에너지신산업은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진 산업이다.

인공지능 또한 호남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먹여 살릴 산업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호남의 미래는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단순히 여러 공약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호남권 메가시티 구상 아래에서 세부적인 공약을 꼼꼼히 준비했다. 살펴봐 따져보시고 지지를 부탁드린다.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 호남은 대한민국의 심장이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라온 정당이다. 저 역시, 영남에서 민주진보진영의 확장을 위해 수 없이 도전해왔다. 그런 도전의 시간마다 호남의 지지와 격려를 받을 수 있다.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온 후보, 그리고 본선에 경쟁력을 얻은 김두관을 지켜봐 주시고 지지해주시길 바란다. 추석이 지나고 광주-전남 경선에서 찾아 뵙겠다. /정리=오광록 기자 kroh@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행복이벤트

응모기간 2021년 3월 8일 ~ 12월 31일 **추첨** 2022년 정기총회(22년 1월 예정) **행시대상** 신규 및 기존 거래자

응모방법 유니온 정기적금개설, 체크카드20만원 이상 이용, 출금자동이체, 신협 공제가입, 공공금자동이체 및 계좌이동제, 신협 제휴카드발급, 사업자 결제계좌, 연금자동이체, 사회적 예탁금 등

※ 중복응모가능, 동일 항목당 최대 2매까지(응모방식은 창구방문)

파워정기예탁금 I형, II형

12개월 연 1.7% 세전/만기해지

18개월 연 1.77% 세전/만기해지

2020년도 출자금 배당률

2.97%

출자금 예금저축대상외 아니고 조합 경영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출자금 배당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2) 이 금융상품을 계약 하시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예탁금 및 저금은 신협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4)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가능합니다.
- 5)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 6) 금융상품 관련 상담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협 영업점 및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등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1명

2등 LG퓨리케어 공기청정기 2명

3등 제주도 2박3일 숙박이용권 5명

4등 키친아트 에어프라이어 15명

5등 테팔 세프드프랑스 프라이팬 100명

※ 제세공과금(22%)은 당 신청이 부담하며, 경품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협영업점 및 홈페이지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본점 266-4150 (광주 북구 문흥로 38)

매곡지점 572-4150 (북구 설죽로 315번길1)

양산지점 573-4150 (북구 양산로 59)

침단지점 576-4150 (북구 침단신로9번길29-2)

운암지점 528-4150 (북구 북문대로 88)

동광주지점 264-4150 (북구 동문대로 187)

동림지점 513-4150 (북구 북문대로 238)

각화지점 263-4150 (북구 동문대로 283, 285)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신협중앙회 심의필 제2021-6호(2021.05.28), 유효기간 2021.12.31까지